

한-베트남 정상회담 후속 성과로 베트남에 K-닭고기가공품 수출 개시!

- 농식품부 장관, K-닭고기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 참석
- 내년까지 총 70톤의 닭고기가공품 베트남 수출 개시, 한-베 정상회담 계기 검역·위생협상 타결('26.4)에 따른 정상외교 후속성과 발굴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'농식품부')와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, 이하 '식약처')는 2026년 4월 한-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타결된 열처리가금육 검역·위생협상에 따라 베트남에 처음으로 K-닭고기가공품이 수출된다고 밝혔다. 송 장관은 10월 21일(수) 전북 익산의 (주)하림에서 개최된 K-닭고기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에 참여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올해 초도물량 수출품의 선적까지 직접 확인하였다.

* 참석자: 하림, 익산시, 식약처, 육계협회, 육가공협회, 검역본부, aT 등

송 장관은 선적식에서 “이번 수출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핵심 육류 수출시장인 베트남에 민관이 원팀으로 함께 협력해 얻은 뜻깊은 성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”며 닭고기 산업 관계자들과 우리 농가의 노고를 치하했다.

베트남은 K-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고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시장으로, 빠른 경제성장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육가공품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 유망국이다. 이에 농식품부 및 식약처는 우리 축산물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월 정상회담 당시 베트남 당국과의 적극 소통을 거쳐 열처리가금육 검역·위생협상을 최종 타결했고, 산업 관계자 및 우리 농가가 현지 제품등록, 유통망 확보, 육계의 안정적 공급 등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 오늘 성과를 발굴한 것이다.

* 베트남 육류시장 규모 : ('20) 77억불 → ('24) 110억불, 연평균 9.6% 성장

오늘 행사에서 (주)하림은 연내 약 2톤의 닭고기가공품 초도물량을 수출한 이후 내년까지 총 70여톤(7억원 규모)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이라 밝혔다. 닭고기가공품은 삼계탕 중심에서 너겟·닭강정 등 수출제품 다변화를 통해 2026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39.5% 증가한 248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수출 유망품목으로, 이번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시장 다변화를 통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.

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“정부는 K-닭고기가공품이 동남아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작업장 확대, 현지 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 밝히며 “닭고기가공품 외에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-베 검역협력 MOU를 바탕으로 현재 베트남과 진행 중인 한우, 열처리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에 대한 수출 협상도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“이번 수출은 위생·검역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진 뜻깊은 성과”라며, “앞으로도 수출 대상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해 K-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 <공동>	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	책임자	과 장 문원탁	(044-201-2331)
		담당자	사무관 주준현	(044-201-2338)
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동희	(043-719-2170)
		담당자	사무관 남궁종환	(043-719-2169)